

# 생산보다 안전이 최우선

##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무지개복지센터

취재 · 사진 | 김성대 기자(gshu002@safety.or.kr)



오승엽 센터장

### 안전 근로자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

안전의 중요성은 몇 번을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전의 중요성을 근로자들에게 인식시키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안전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안전에 대해 알려고도 하지 않는 근로자들을 발견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저 역시 처음 장애 근로자들을 접할 때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애정어린 말을 주고 받다보니 근로자들의 마음이 열렸고, 자연스럽게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저희 센터에서는 장애 근로자들의 가정사를 포함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는지 없는지 등도 파악해 최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합니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무지개복지센터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이들의 완전한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4월 개관했다. 개관 직후부터 8월말까지는 장애인들에게 제품생산에 필요한 체계적인 직무숙달 훈련을 계속해 왔다.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는 무지개복지센터. 하지만 이곳이 위치한 대덕산업단지에서는 무지개복지센터가 벌써부터 많은 이들에게 화자되고 있다. 장애인 근로사업장 가운데서는 최초로 지방공기업이 운영한다는 배경 외에도 이곳에서 생산하는 점보롤, 핸드타올, 복사용지, 제과제빵 등의 생산품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퍼진 까닭이다.

여기에는 제품을 만드는데 있어서는 장애인이 아닌 장인으로서 최고의 제품만을 내놓겠다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마음이 녹아 들어가 있다. 장애인 근로자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일할 수 있는데에는 즐겁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든다는 경영방침이 크게 작용했다. 제품의 생산성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무지개복지센터를 찾아가 봤다.

### 장애인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구축

이곳의 근로자는 모두 장애인이다. 1~6급까지 총 54명의 장애인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은 1~3급 중증장애인이다. 이에 따라 무지개센터에서는 장애인 맞춤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안전한 사업장 환경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우선 장애 근로자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장애특성과 정도에 따라 그에 맞는 직무를 배치하고 있다. 이 어 각 직무별로 공정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해 반복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보건실, 휴게실 등을 마련해 장애 근로자들이 즐겁고 안전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위험요소 원천 차단

이곳에서는 장애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근로사업장에 들어서 있는 생산 설비를 보면 이를 바로 알 수 있다. 점보롤 화장지, 핸드타올, 복사용지, 제과제빵 등의 생산설비를 설치할 때 안전과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 장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기계의 설계단계부터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협착 위험이 있는 비닐포장기 상부에 덮개를 설치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 위험기계로 분류돼 있는 제분용 재단기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정기적으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화상사고 위험이 있는 제빵제과 작업 시 장애 근로자들에게 안



정보호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각 공정별로 맞춤형 안전장비들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참여형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

관리자와 근로자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면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이곳의 특징 중 하나다. 딱딱한 안전교육에서 벗어나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안전활동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대한산업안전협회 현장점검 시 개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근로자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 구체적으로 무엇이, 왜 위험한지를 알리고 있다.

'안심이 짝꿍' 제도는 이곳만의 자랑거리다. 근로자 간에 짝꿍을 정해 서로의 불안정한 행동을 체크해주고 보호구 착용 등을 확인하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장애 근로자들의 심신안정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문화의 날'을 지정, 영화관람, 체육활동, 견학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 안전활동과 재활활동 병행

이곳에서는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외에도 장애 근로자들의 재활에도 힘쓰고 있다. 매주 화요일에는 근로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신체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초빙해 순환운동, 세라밴드 운동, 집볼운동 등을 실시해 장애 근로자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이다. 무지개복지센터에서는 이를 통해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또 근로자간의 관계형성 및 신체건강증진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직업적응훈련생 15명에게는 등산, 수영장 등 외부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생산제품에 대한 선입견을 깨기 위해 품질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도 장애인 근로자들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무지개복지센터. 앞으로 전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선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무지개복지센터 <http://cafe.naver.com/gjiseo>

